

지역 매 아 리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JUMP & RUN' 페스티벌 개최

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 페스티벌 '생문동 JUMP & RUN'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부안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8개 동호회, 350여명의 생활문화예술인들이 공연·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생활문화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음악, 무용, 국악, 문학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사진인화, 목공예, 압화체험, 영상제작체험, 비즈블럭 등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성구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원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협력을 쌓아 더 확고한 자신들의 생활문화예술을 성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미래 100년 먹거리 본격 구축

부안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중점 추진

부안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군은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

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내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주)미코가 개발한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옛 부안군수 관사에 설치해 실증 가

동을 시작했다.

이번 시스템은 연료전지 전문기업 미코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단 계검사를 국내 최대 효율로 획득된 제품이다.

정격발전용량 2kW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5세대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소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며 반응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높은 온도의 온수로 활용할 수 있고 발전단기도 저렴해 차세대 에너지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점해 지속가능한 부안,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도시 부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실버문화축제 개최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주최한 '2019년 정읍 실버문화축제'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노인복지관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첫째 날에는 어르신들의 무대 작품 발표를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기념식에는 꼬마마을 어린이집과 김소희 발리댄스의 정성스러운 공연과 최상우 관장의 개막선언이 있었다.

이어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제작·진행에 헌신한 이병성·오정민 강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노래교실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어르신 가을 운동회'를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높여 주었다.

또, 이틀간 수지점·네일아트·귀반사요법·전통놀이 체험 등 부스가 운영돼 어르신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더불어,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원 물품 판매·어르신 작품전시회도 운영됐다.

작품전시회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사진·서예·시화 등이 전시됐다.

유진섭 시장은 "어르신의 평생학습 장인 시 노인복지관이 해가 지날수록 어르신의 행복 전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든든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고창군, 어르신 일자리 창출위한 시니어클럽 개관... '피어라 은빛의 꿈'

고창군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을 개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고창시니어클럽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창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에 위탁·지정해 운영되며, 고창읍 월곡택지 내 고창고육문화센터 2층에 자리 잡았다. 앞으로 어르신 맞춤형 취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개발, 일자리 상담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공공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및 고창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어르신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이 '고창시니어클럽'을 개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전문 시니어모델발굴 사회적이업인 '뉴시니어라이프'에서 40여명의 전문 시니어모델이 패션쇼를 진행했다. 특히 고창군 어르신들이 함께 위킹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개소식에 참석한 관중들에게 뜨거운

반응과 환호를 받았다. 또 시니어클럽 1층 로비에선 전북권 시니어클럽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북권의 다양한 어르신들이 제작한 상품들을 둘러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보건소, 건강걷기 앱 '워크온' 이벤트 진행

정읍시 보건소가 생활 속 걷기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건강걷기를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2주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챌린지에 도전해 7만7700보 걸기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고급 스포츠 양말을 증정한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정읍시 커뮤니티 '1530 워킹정읍!'에 가입해 777 걷기챌린지(정읍시)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걷기용품 증정 쿠폰은 워크온 앱에서 선착순 300명의 챌린지 달성자에

게 자동발송된다.

휴대폰을 지참해 이달 18일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실에 방문하면 걷기용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걷기 플랫폼 '워크온' 구축을 위해 협약을 가진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섬김 행정의 첫걸음

고창군 관인, 판소리체로 바꿔 공식사용

고창군이 군수 직인을 포함한 고창군 관인을 모두 동리 신재호 판소리체로 교체했다.

6일 고창군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유기상 고창군수가 집무실에서 제1호 판소리체 관인발송을 결재하면서 전체 118점의 기존 관인이 모두 교체됐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동리국악당에서 '판소리의 발상지 고창! 판소리체 관인'으로 다시 피어나다'는 주제로 관인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선 관인선포가 판소리 공연, 서예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군이 기존 30여년간 써왔던 전서체 관인은 꼬불꼬불하게 구부러져 관인은 알아보기 힘들다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민선 7기 고창군은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섬김 행정의 일환으로 관인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글자체 선정과정에서 역사학, 서예, 디자인 전문가 자문은 물론, 군민과 전체 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글씨는 최종적으로 고창의 역사적 상징과 문화적 정체성, 문화·예술적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동리 신재호 판소리 훈향기체로 선정됐다. 관인 조각은 서울시 인



사동 '캘리온' 대표이자 인장 제작 및 수제도장 전문가 석정 장운식 선생이 조각했다.

석정 장운식 선생은 "이번 조각은 고창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는만큼 긴장이 많이 됐다"며 "관인이 찍힌 서류나 상장을 받는 고창군민 모두가 잘 되라는 공정의 미학과 고창 판소리의 혼을 관인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관인을 변경한 것은 군민이 최우선인 섬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관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고창 고창의 이미지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다

하노이·호치민 등 현지 대형마트서 정읍 배 판촉 행사 큰 호응

정읍시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소재한 대형마트 14개 점에서 고품질 정읍 배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농가소득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관계자와 정읍단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 배 생산 농가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대형매장을 방문해 정읍 배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정읍 배 판촉 행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베트남 수출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베트남은 약 1억의 인구나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대만에 이은 정읍 배 수출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수도인 호치민을 중심으로 정읍 배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수

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정읍단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한 조생종인 원황배와 화산배를 비롯한 신고배 등을 올 연말까지 313톤을 수출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읍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